



2026. 7. 29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헌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5대 은행 가계예대금리차 1.298%p...전월보다 0.09%p ↓

뉴스스

<https://zrr.kr/DU26in>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며 1.3%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모습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이를 선반영한 시장금리 영향에 대출금리가 상승했지만,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차이를 축소

마통 한도 줄인 은행들...금리 문턱도 높였다

서울경제

<https://zrr.kr/IYzr08>

주요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줄이면서 동시에 금리는 올리는 방식으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이 시장금리 흐름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다음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실수요자 부담 확대 전망

“합병 검토할 때 아냐” 얼라인 제안 거부한 BNK·JB

서울경제

<https://zrr.kr/ZazOFz>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이 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양사 합병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거부
얼라인파트너스는 두 금융그룹이 합병할 경우 자산 234조 원 규모의 대형사가 탄생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AI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합병을 제안

통신료가 은행 문턱 낮았다... 비금융 정보로 642명 대출 성공

국민일보

<https://zrr.kr/5hNCgD>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기록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가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을 토대로 대출을 받기 시작
오랜 기간 시험 단계에 머물렀던 ‘대안 신용평가’가 실제 대출 승인 여부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

이억원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국제신문

<https://zrr.kr/jb7EI7>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소통
예시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언급

“ETF시장, 투기판 될 줄은”...설정액 39조 급감에도 레버리지만 5조 불어

매일경제

<https://zrr.kr/TICfcm>

국내 상장 ETF 1150종의 총 설정액은 6월 말 대비 감소했으나 전체 1150개 중 62개에 불과한 레버리지 ETF 설정액은 증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주가가 8000원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와 ‘물타기’ 수요가 집중됐다는 분석

‘차량5부제’ 보험특약 3개월 만에 종료...가입률 0.25% 수준

데일리안

<https://zrr.kr/4DcwXS>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 도입한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특약이 시행 약 3개월 만에 종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성 상품으로 도입됐지만, 낮은 가입률과 복잡한 이용 절차 등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

저출생 뚝은 ‘어린이보험’ 경쟁 속도... 신담보 선점 경쟁 ‘후끈’

이투데이

<https://zrr.kr/xwhtC7>

저출생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어린이보험 보유계약이 꾸준한 증가세 지속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자리 잡은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장 범위를 발굴하려는 손보사들의 신담보 개발 경쟁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

공공부문 코인 수탁 본격화...대형 커스터디 독식 우려 커져

이데일리

<https://zrr.kr/GeGhSU>

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수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 커스터디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공공기관 입찰은 향후 열릴 디지털자산 법안시장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작용하는 만큼 수주가 절실하지만 입찰 구조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리하게 형성돼있기 때문

브라질·아르헨티나, 스테이블코인 확대...IMF는 감독 공백 지적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xemagn>

브라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자금이동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주요 은행 그룹이 페소 연동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나선 모습
남미 주요국은 규제 정비를 기다리기보다 디지털 자산 기반 송금·결제 인프라를 먼저 확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